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0월 31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정책과	담당자	• 안전기획담당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강금설 ☎440-573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시설 안전점검

- 31일 상황회의 직후 문학경기장, 모래내시장 등 긴급 시설 안전점검 -
 - 유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 및 안전요원 추가 배치 지시 -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 핼러윈데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이 주요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0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2차 상황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관내 주요시설을 찾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며, “우리 시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는 물론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이른 시일 내에 소방, 군·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취약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유정복 시장은 11월 1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릴 예정인 인천문학경기장을 찾아 안전 조치 등을 사전 점검했으며, 이어 상가건물형 중형시장인 모래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화재 취약시설 등 안전 대비상황을 함께 살폈다.

문학경기장은 찾은 유정복 시장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는 2만명 이상의 관중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좁고 경사진 곳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 확대 배치와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야간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을 나가려는 관중들이 집중될 때 계단이나 경사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모래내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와 군·구, 소방당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주기 바라며,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물론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 등의 내구연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 29일 밤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밀집한 인파 중 일부가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31일 06시 현재 소방청 발표 인명피해 사망 154명, 부상 149명이 발생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